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조사결과 '비료공장 연관성 있다'

환경과학원, "1급 발암물질 검출"

전북 익산시 장점 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이 인근에 있는 비료 공장 과 연관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설명회'를 통해 비료 공장에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질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20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비료공장인 금강농산 사업장 내부와 장점마을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와 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TSNAs)이 암 집단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담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TSNAs)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과학원은 "이 공장에서 연초박(담배잎 찌꺼기)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이 마을까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부암과 담낭암 등의 발생이 전국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료공장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환경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2017년 말 기준)에게 암이 발생했고, 이 중 14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다만 비료공장이 이미 파산해 당시의 발암물질 배출량과 주민 노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암과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피해 구제작업을 하고 주민 건강 상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는 20일 전주시청에서 창업지원·기술지원·금융지원 등 11개 분야 14개 기업지원기관의 전문가 각 1명씩을 기업애로원스톱 지원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문가와 함께 기업 불편 '한방에 해결'

전주시,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단' 출범

중소기업 현장의 불편사항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단'이 가동됐다.

전주시는 20일 전주시청에서 창업지원·기술지원·금융지원 등 11개 분야 14개 기업지원기관의 전문가 각 1명씩을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지원단은 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운영과정에서 행정력만으로는 기업 불편사항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

다고 판단. 조달, 특허·세무·회계, 인력매칭 등 실질적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14개 분야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생동감 있는 답변과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다.

14개 참여기관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금융지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기술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인력지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노동) △전주세무서 △북전주세무서(이상 세무·회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법률지원) △전북지

방중소벤처기업청(기업지원) △전북지방조달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상 관로확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식센터(지식재산권) △전북테크노파크 컨텍센터(경영지원)이다.

이들은 향후 각종 경제단체 간담회 등에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지난 2017년 9월 중소기업의 지위향상 및 성장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돼 현재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단체다. /송효철 기자

'미스트롯' 송가인 새벽 교통사고 당해 "다행히 큰 부상 없어"

'미스트롯'으로 알려진 가수 송가인(32)이 스케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큰 부상은 없었다.

2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금산사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트럭이 송씨가 탄 카니발 차량의 측면을 들이쳤다.

이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 돼고 송씨 등 탑승 중이었던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광주에서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이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차선을 변경하려던 트럭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음주 사고 낸 무면허 60대

'알고 보니 상습 음주 운전'

경찰,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02% '면허취소' 수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반주까지 한 뒤 음주사고를 낸 무면허 60대가 조사 과정에서 상습 음주 운전 사범으로 밝혀진 전력이 드러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경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들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들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이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밤부터 새벽



까지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아침식사도 함께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운전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는 크게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미미하게 감소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석훈 기자

뉴스위크 '한국 TOP 10' 병원에 '예수병원' 선정

80.4점 획득, 58위 차지

워싱턴포스트 자매지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최근 '한국 최고 병원 TOP 100'을 선정, 발표에서 전체 점수 80.4점을 획득해 예수병원은 '한국 TOP 100' 병원 중 58위를 차지했다.

'뉴스위크(Newsweek)'의 '한국 최고 병원 TOP 100'에서 민간 중소 종합병원의 약진이 눈길을 끌었으며 '한국 최고 병원 TOP 100' 순위 에 포함된 민간 종합병원이 일 반 대학 및 종합병원들의 성적을 압도했다.

한국 최고 병원 TOP 100에서 대학 병원을 제외한 민간 종합병원으로는 예수병원을 비롯한 18개 병원이 포함됐다.

병원계는 '한국 최고 병원 TOP 100' 발표에서 예수병원을 포함한 선정된 종합병원들이 전국 유명 국 공립, 대학병원(약 110곳)을 제치고 대거 약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1,855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정된 종합병원 모두 상위 4%(안에 들

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은 "세계적인 언론사로부터 예수병원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점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이다."며, "예수병원은 우수 의료진 확보, 풍부한 임상경험과 체계적인 진료, 치료시스템과 뛰어난 수(시)술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소감을 밝히고 "특히, 우리나라 1,800개 병원 중 예수병원 상위 3%에 속한다는 것에 지역주민들이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예수병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위크는 독일의 글로벌 시장통계조사그룹 '스타티스타(Statista)'에 의뢰,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개월간 의료전문가 추천

(해당 국가 50%, 외국 5%, 총 55%), 환자만족도(15%), 의료성과지표(30%)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1000개 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뉴스위크지는 주요 국가별 TOP 100을 발표했는데 주요 대상 국가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11개국이다.

'한국 최고 병원 TOP 100'에서 서울아산병원이 1위를 차지했고 'TOP Specialized' 병원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국군수도병원이 뽑혔다.

국내 평가 순위 10대 병원은 모두 '세계 100대 병원(WORLD'S BEST HOSPITALS - TOP 100 GLOBAL)'에 올랐으며, 세계 최고 병원은 메이요클리닉(미국 미네소타)이 차지했다. /김영태 기자

전국 자원봉사지기, 전주서 '성장의 길' 모색

전주자봉센터, 27-28일 실천지향 컨퍼런스 PLUG-IN 개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이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전주에 모인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사)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테이트호텔에서 '2019 제4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PLUG-IN'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성의 재구성, 자원봉사 성장의 길'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전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자원봉사 관련 주요 이슈와 현안 연구를 통해 전국의 센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컨퍼런스 첫째 날에는 실무세션을 통해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이 그간 연구해온 소논문을 발표한다. 소논문은 올 상반기에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네트워킹 △프로그램 △모금의 5가지 주제로 공모한 '자원봉사 지식창고 V-Cloud'에서 선정된 것들이다.

이어,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교수의 '안녕을 묻는 사회, 우리 사회 공공성의 재구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새로운 공공성 △개인의 성장과 발전 △센터의 일하는 방식 △지역혁신 등 4개의 세션으로 나눠 학습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는 현정리포트 '지금 우리는'을 통해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올해 자원봉사

의 중심에 있는 관리자의 혁신을 다짐하고 새로운 성과 지표를 세우는 '자원봉사 공공성의 재구성을 위한 전주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승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현안을 고민함으로써 전국 246개 센터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대사회에서 변화의 흐름 속에 조응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의욱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은 올해 전국 컨퍼런스를 다시 개최함으로써 성장을 넘어 성숙을 고민하는 자원봉사센터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글로벌 청년스타트업 육성

전주시·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오렌지 팜 전주센터 운영 위한 사전 준비

청년인구가 많은 전북대학교 인근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유망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거점 공간인 '오렌지팜 전주센터'가 구축된다.

오렌지팜은 전주시와 (재)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구축하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다.

시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초기 청년 창업자 중 문화·IT서비스·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오렌지팜 전주센터를 통해 외부투자유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창업보육사업의 경우 기관중심 운영으로 사무공간과 시설 제공이 주목적이었지만 오렌지팜 전주센터의 경우 △오렌지팜 성장지원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연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창업자의 성장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렌지팜 전주센터는 기능을 갖춘 총 7개의 스타트업실, 2개의 회의실과 운영지원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

주청년 창업자들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정중앙에는 스타트업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력 발현, 아이디어 발굴,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2개 층이 연결된 '오렌지팜 광장'도 들어서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멘토링, 특강, 수시면담과 같은 성장지원 프로그램 △자본금 투자유치 유도를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멘토링과 경영자문 프로그램의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임직원을 포함한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1:1 밀착형으로 진행되며 10년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노하우가 집중된다.

이들은 또, 역량 있는 청년창업가 발굴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오는 8월에는 사전 사업설명회를 열고 관심 있는 청년들과 네트워킹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오렌지팜 전주센터가 청년창업 거점 공간으로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시민의 완주 지역 출퇴근 빨라지나

전주 전미동-완주 봉동·삼례

있는 하리교 25일 4차로 확장

전주시 전미동과 완주군 봉동·삼례 지역을 연결하는 하리교가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될 예정이어서 전주시민들의 삼례·봉동지역 출퇴근이 빨라지게 됐다.

시는 완주군과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업인 하리교 재가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88년 개설된 하리교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잇는 주요 교량이지만 도로가 4차선 도로인 반면 교량의 폭이 8m로 2차로에 불과해 그간 차량 병목 현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중대형 차량의 경우 교량 진입이 어려워 인근으로 6km를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송효철 기자